

# 이 이남 자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빛’

### 이이남, 2월 8일까지 서울 가나아트센터 전시 TV 모니터 외 조각·오브제에 빛·영상 입혀 인간과 빛·아날로그와 디지털 ‘성찰 메시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45)씨의 작품은 머릿속에 ‘영화 시리즈’로 각인돼 있었다. 김홍도의 ‘목죽도’ 등 동서양의 명작들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부활시켜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씨는 단숨에 세계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모네의 수련 연못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녔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서는 한 겨울 내리는 눈이 초가지붕과 노승에 쌓였다. 캔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명화들은 이씨의 모니터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서 이씨의 작품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그리스도가 취조받는 모습적인 모습을 통해 인권 문제를 이야기한 ‘취조받는 그리스도’와 물에 갇혀 있던 TV 속 비둘기가 하늘로 비상하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펴는 작품인 ‘Re born’ 등 설치 작품 2점을 그의 작가적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가능하게 해준다.

이씨가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로 띄워 보내면서 새로운 부활을 예고했다.

2월 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전관에서 열리는 이씨의 개인전에서는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작가의 새로운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는 빛’을 주제로 열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씨가 TV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던 간의 영상 작품과 함께 조각 및 오브제에 빛과 영상을 입힌 작품 2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주제 ‘다시 태어나는 빛’은 인간과 빛에 대한 이씨의 성찰이자 반성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삶과 사회를 되돌아 보게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다시 태어나는 빛’이다.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난 500년간 안겨 있던 어머니의 품을 벗어 나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작가는 “성모 마리아의 품을 벗어나면서 그리스도가 새 생명력을 얻어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공주는 가슴에서 빛을 발하는 조각으로 재탄생했다. 마르가리타 공주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가 비추는 빛이 머는 곳에 세일러문과 나비 등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왜 TV를 짊어졌을까’는 아날로그 TV에 대한 이씨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심자가 대신 아날로그 TV를 짊어지고 가고 있고, TV 화면에는 아날로그를 상징하는 ‘컬러바’가 붙어 있다. 이씨는 단순한 아날로그의 종말 대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를 이야기한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인간과 미디어아트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있고, 미디어 아트도 모니터와 콘텐트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육체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면 TV는 인류의 예술과 문화, 사상 등 모든 것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독일, 미국, 파리,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전시회에 초대 받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 받아 ‘개인적인 구축물’ 부문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생오지문예창작촌 협약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원훈)과 (재)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은 8일 광주문화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업무교류협약식을 갖고 생오지문예창작촌의 대표강좌인 문예창작대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생오지문예창작촌은 지난 2006년 소설가인 문순태 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담양군 남면 만월리 생오지 마을에 설립한 ‘생오지문학의 집’을 출발했다. 이후 창작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3월 시지빌 ‘문예창작대학’을 생오지문예창작촌과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문화 향유 기반 구축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기획 ▲지역 문화분야 및 융합 문화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수행 ▲기타 협력 분야의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예총 제9대 회장 선거 앞두고 갈등

### 일부 예술인들 ‘현 회장 3선 반대’ 성명 최규철 회장 “출마 선언도 안했는데...”

지역 대표적 예술단체인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이하 광주예총)가 제9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 예술인들이 “최규철 현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광주예총 회장은 지난 6대까지 ‘단임’으로 회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유독 현 회장만 광주예총 정관에 연임 및 재임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년을 재임, 8년을 연임했고, 또 3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예총회관 문제를 본인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해괴한 핑계와 논리로 광주예총 역사상 12년이라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최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출마를 가정사실화 한 후 음해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예총회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위성은 이야기했지만 꼭 나만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출마를 하겠다는 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선관위를 꾸린 후 후보 등록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예총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대의원과 예총 임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며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임기는 4년이다.

한편 광주예총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선관위는 총회 15일 전에 10개 협회 회장이 각각 추천한 1인씩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다. /김미은기자 mekim@

##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총장로 기분좋은 극장, 2월 8일까지 ‘이프 온리’**

사랑하는 사람을 단 3일만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는 것,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남겨지는 것. 누구나 언젠가 한번쯤은 경험하는 일이다.

마음을 울리는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프 온리’가 오는 2월 8일까지 광주 총장로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된다.

10년간의 연애를 끝낸 재운과 수진은 결혼을 앞두고 어느 커피숍 다들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어느날 결혼 준비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고,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숨진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자살을 결심하는 수진은 그녀를 안쓰럽게 여긴 점점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단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



지만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연극은 내 곁에 없지만, 내 곁에 머무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과의 대화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티켓 가격 3만원. 문의 062-374-330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국립중앙도서관 작년 대출 1위 **조정래 ‘정글만리’**

조정래의 소설 ‘정글만리’가 2013년에 이어 2년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문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비즈니스맨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묘사한 ‘정글만리’가 1위를 고수한 가운데 그 뒤를 여러 형태의 감정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한 ‘강신주의’ 감수업이 따랐다.

소설 강제는 여전히 두드러져 ‘정글만리’ 외에도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허기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종합 순위 3~5위를 기록했다.

분야별 1위는 다음과 같다. ▲ 자기계발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 사회·경제 ‘트렌드 코리아 2014’ ▲ 생활·과학 ‘손과 뇌’ ▲ 컴퓨터·IT ‘(Do it!) HTML5 + CSS3 웹 표준의 정석’ ▲ 예술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 역사·여행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이었다.

/연합뉴스



## 무안 달머리 당산제·굿 현대적 해석

### 갯돌 ‘달머리 사람들’ 21일 승달문예회관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이 무안의 문화 자산 달머리 당산제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21일 오후 7시30분 무안군 승달문예회관.

이번 작품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호남권 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 창작과 지역 문화자원의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으로 진행된 ‘2014 광주·전남 스토리 랩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무안군 현경면 월두마을의 유형 자산

인 갯벌과 정선문화 자산인 달머리 당산제를 모티브로 한 마당극 ‘달머리 사람들’은 갯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생태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무안 월두(달머리) 마을의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이 다시 만나 부부신 형태로 마을을 지키는 이야기를 당산제, 굿, 출렁기 등 전통적 원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표현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1-243-9786. /김미은기자 mekim@

###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b>1일째</b>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도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b>2일째</b>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적태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모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별)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b>3일째</b>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용골리안 마상소(현지직별) 모험사냥 : 선박맞춤공, 현지자랑, 일한내의입국, 속사비, 여행자보험 불꽃행사 : 온센(현지직별), 기타, 가이도(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불버스) 1인 ₩20,000원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자유식

※ 참가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실물은 수령해지지 않습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외회 별도모의

###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열버스, 입장료, 숙박(2인실), 숙박(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열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숙박(2인실), 숙박(상등권), 여행자보험,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천어 매복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시 : 광명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